

“Laguna 문예” 동아리

Feb 23, 2017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영주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라구나우즈에는 문학과 예술에 대하여 조예가 깊으신 숨은 인재가 참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꿈을 이루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문학과 예술 세계에서만 가능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갈고 닦고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 값진 결실을 글로 남겨야 할 때이지요.

그동안 김일홍 회장의 열성과 노력으로 <한인들의 이야기-2014> <세상 이야기-2015> <아름다운 동행-2016> 3년 연속 우리 동네 글을 모아 발표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문학의 깃발을 꽂은 김일홍 회장께 우리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에 취미가 생겼고 표현 능력도 일취월장의 효과를 거두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번에는 **6.25 참전 용사들의 글을 모으는 이유는 이제 90세 안팎의 선배님들께서 민족상쟁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남긴다는 뜻이기에 참으로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현재 불 붙고 있는 문학 표현의 욕구를 금년에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요청은 당연하지만 2017년 책 발간 계획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동네에는 제대로 된 문예 클럽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1년에 한 번 글을 모아서 책은 펴내는 모임은 있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창작 교실을 운영하는 조직적인 동아리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글을 쓰고 싶어도 문장 작성법을 모르고 아름다운 시상이 떠올라도 표현 기법을 몰라서 애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문예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습작이나 창작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취미 생활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상당수의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먼 타지역 창작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문예 클럽 탄생을 여러 차례 요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라구나 문예협회>를 결성하여 2017년에 발간할 글모음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으니 관심이 계신 분은 운영에 직접 참여하셔서 명실공히 우리 마을을 대변할 수 있는 격조 높은 문예지로 성장하도록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클래스 참여와 함께 금년도 원고를 모집합니다.

글을 쓰시고 싶은 분은 연락 바랍니다.

A. 목적 및 취지

1. 노년의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2. 못 다한 이야기, 하고픈 이야기,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다듬고 교정해서 책으로 펴냅니다.
3. 후배나 자손에게 교훈을 주는 글이나 공유하고 싶은 기록을 영원히 남깁니다.

B. 활동

1. 시, 시조, 동시, 수필, 콩트를 한글 또는 영어로 모집합니다.
2. 창작, 습작을 감상하고, 이론, 표현의 기교를 서로 교환하고 연구합니다.
3. 문학과 예술의 소양을 기릅니다.

C. 회원 자격

라구나우즈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글을 쓰기로 작정하신 분은 우선 연락처로 회원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을 제출한 사람은 누구나 본회 회원으로 간주합니다.

D. 회비

1. 회비는 없습니다.
2. 매년 출판비는 균등하게 각자 부담합니다.
3. 독지가의 기부금을 환영합니다.

E. 원고 제출

1. 원고 마감—6월 30일까지 수시로 제출.
2. 분량— 1- 4페이지 정도 (A4 paper size 8 1/2”—11”)
3. 내용—제한 없음.
4. 문의 및 연락처
(917) 993- 1685 mk588@nyu.edu 김소향
(614) 302- 9759 yol226@yahoo.com 이영옥
(310) 970- 2707 youngjko@hotmail.com 고영주
5. 사진 — — - (253) 583-6588 nyu2875@naver.com 박승원

라구나 문예협회